

# '營'字와 '榮'字的 用例 分析 研究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sup>1</sup>  
金楨洙<sup>1</sup> · 黃萬錫<sup>1</sup> · 白晉雄<sup>1</sup> \*

## A study on the examples of character 'Yeong(營)' and 'Yeong(榮)'

Kim Jeong-soo<sup>1</sup> · Hwang Man-suk<sup>1</sup> · Baek Jin-ung<sup>1</sup> \*

<sup>1</sup>Dept.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haracter 'yeong(營)' has been used mixed with 'yeong(榮)' from the time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up to now. One word can have a various meaning according to the context. So it is difficult to make a precise definition. Moreover as the words in Korean medicine are abstrus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nd make the meaning straight with the words like 'yeong(營)' and 'yeong(榮)'. This study is focused on classifying the meanings and examples of 'yeong(營)' and 'yeong(榮)' by the dictionary definition, examples in medical classics, examples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From this study, we get to know 'yeong(營)' and 'yeong(榮)' was used mixed with the concept of 'yeong-gi(營氣)' which means 'transporting nutri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from the dictionary definition and the aspect of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using 'yeong(營)' is more reasonable than 'yeong(榮)' in both cases.

**Key Words** : character yeong(營), character yeong(榮), examples

## I. 序論

'營'字와 '榮'字的 사전적 意味는 다양한데, 다양한 意味 中에는 유사한 意味도 포함되어 있어 歷代의 古典에서부터 현재 서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적에서 분명한 區分 없이 混用되어 왔다. 예를 들어 『素問·痺論』에 “榮衛의 氣도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痺하게 합니까? (榮衛之氣, 亦令人痺乎?)”<sup>1)</sup>라 하여 ‘영

기’를 意味하는 ‘營’字에 ‘榮’字를 쓰고 있고, 『素問生氣通天論』 “營氣가 從하지 못하여 肉理에 逆하면… (營氣不從, 逆於肉理…)”<sup>2)</sup>에 보면 ‘營’字를 쓰고 있다. 이처럼 『黃帝內經』內에는 ‘營’字와 ‘榮’字가 똑같은 ‘영기’를 意味할 목적으로 混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混用되는 경향은 後代에도 계속된다. 조선시대 대표적 醫書인 『東醫寶鑑·內景篇氣門』을 보면 “綱目曰, 榮氣之行, 自太陰始, 至足厥陰終, 一周

\* 교신저자 : 白晉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mukjagan@pusan.ac.kr Tel: 051-510-8452.  
접수일(2010년 2월 19일), 수정일(2010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2일)

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傳統文化硏究會. 1993. p.261.  
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傳統文化硏究會. 1993. p.29.

於身也。”<sup>3)</sup>라 하여 ‘영기’를 의미하는 ‘영’字로 ‘榮’字를 사용하고 있으며, 『東醫寶鑑·內景篇·五臟六腑門』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sup>4)</sup>을 보면 ‘營’字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글자로 ‘營’자와 ‘榮’자를 혼용했거나, 적어도 혼용되어 사용된 두 글자를 특별한 문제 삼지 않고 原書에서 그대로 인용했음을 의미한다. 또 최근의 『黃帝內經』 翻譯書를 보면, 『素問·痺論』에서 “營은 水穀의 精氣이니, … (榮者, 水穀之精氣也 …)”<sup>5)</sup>이라 하여 原文에서는 ‘榮’字를 쓰고 있으나 해석한 부분에서는 ‘營’字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例로 볼 때, 『黃帝內經』이 쓰인 시대부터 현재까지 ‘營’字와 ‘榮’字가 혼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營’字와 ‘榮’字의 意味와 그 用處를 명확히 區分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적으로 유사한 意味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서적에서 혼용된 用例도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글자를 분명하게 區分하지 않더라도 韓醫學 原典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醫學 理解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韓醫學 用語의 難解함 때문이고, 韓醫學 用語가 難解한 이유 중 하나는 한 가지 用語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意味의 폭을 가져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營’字와 ‘榮’字처럼 혼용되는 글자 각각의 意味를 살피고 각 글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區分 짓는 작업은 韓醫學 用語 標準化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충분한 意義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營’字와 ‘榮’字의 사전적 意味, 文獻的 用例, 『黃帝內經』에서의 用例를 바탕으로 ‘營’字와 ‘榮’字의 意味 및 그 用處를 명확히 區分하고자 本 研究를 시작하였다.

## II. 研究 方法

- 3) 許浚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186.
- 4) 許浚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272.
- 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1.

## 1. 資料의 구성

- 1)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서울, 결론출판부, 2004.
- 2)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 3)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下), 서울, 一中社, 1992.
- 4)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편저, 改訂版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 5) 『黃帝內經』관련 서적
  - ①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 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 ②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 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 ③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上), 여강출판사, 2007.
  - ④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下), 여강출판사, 2007.
  - ⑤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上), 여강출판사, 2000.
  - ⑥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中), 여강출판사, 2000.
  - ⑦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下), 여강출판사, 2000.
  - ⑧ 金達鎬, 李鍾馨 譯,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上), 圖書出版 醫聖堂, 2001.
  - ⑨ 金達鎬, 李鍾馨 譯,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下), 圖書出版 醫聖堂, 2001.
  - ⑩ 金達鎬, 李鍾馨 譯, 補注注解黃帝內經靈樞, 圖書出版 醫聖堂, 2001.

## 2. 研究 方法

1) ‘營’字와 ‘榮’字의 原義를 分析하기 위해 『漢韓大詞典』을 이용하여 각 글자의 基源과 뜻을 살펴보고 사전적 意味를 分析했다. 다만 단위·이름·명칭과 같이 글자의 전반적인 意味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排除하였고, 또 韓醫學의 이론과 관계된 것은 이후 『黃帝內經』을 통해 보다 자세히 考察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2) '營'字와 '榮'字의 韓醫學의 意味를 보다 세밀히 考察하기 위해 『黃帝內經』에 사용된 用例를 『黃帝內經詞典』의 分類방식을 이용, 각 글자가 포함된 『黃帝內經』의 原文을 拔萃 및 分類하였다.

3) 『黃帝內經』原文은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底本으로 한 『校勘直譯 黃帝內經 素問』과 『校勘直譯 黃帝內經 靈樞』를 底本으로 하였다.<sup>6)</sup>

4) 國譯은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과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과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 『補注解黃帝內經素問』과 『補注解黃帝內經靈樞』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논란이 있는 해석의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 혹은 일반적으로 定說로 알려진 견해를 引用하였다.

### III. 本論

#### 1. 『漢韓大辭典』<sup>7)</sup>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意味와 用例

##### 1)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營'字<sup>8)</sup>의 意味와 用例<sup>9)</sup>

① 에워싸다. 휘감다.

【用例】『公羊傳·莊公25年』以朱絲營社.

6)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底本으로 하지 않고, 이를 底本으로 한 『校勘直譯 黃帝內經 素問』과 『校勘直譯 黃帝內經 靈樞』를 底本으로 한 이유는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底本으로 하되 여러 판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底本の 분명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것은 별도의 校注없이 바로 교정하였다.(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4.)”란 譯者의 언급을 고려할 때,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된 이 책의 原文이 底本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7)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8)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p.1311.

9) 단위, 이름, 명칭 등과 관련된 뜻은 글자의 전반적인 意味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韓醫學의 이론과 관련된 意味 또한 뒤에서 黃帝內經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에 제외하여 여기에서는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25개의 意味 가운데에서 13개만 拔萃 및 引用하였다.

② 군영. 영채.

【用例】『史記·絳侯周勃世家』於是天子乃接轡徐行. 至營, 將軍亞夫持兵揖曰, 介冑之士不拜, 請以軍禮見.

③ 주둔하다. 야영하다.

【用例】『三國志·蜀志·後主傳』五年春, 丞相亮出屯漢中, 營沔北陽平石馬.

④ 건조하다. 짓다. 만들다.

【用例】『左傳·隱公11年』使營菟裘, 吾將老焉.

⑤ 경영하다. 관리하다.

【用例】『左傳·襄公14年』衛君其必歸乎. 有大叔儀以守, 有母弟鱄以出. 或撫其內, 或營其外, 能無歸乎.

⑥ 마련하다. 준비하다.

【用例】『南史·孔奐傳』武帝剋日決戰, 乃令奐多營麥飯, 以荷葉裹之.

⑦ 경작하다.

【用例】『廣雅·釋地』營, 耕也.

⑧ 필요로 하다. 또는 강구하다.

【用例】『釋義』安貧樂賤, 與世無營.

⑨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

【用例】『列子·周穆王』尹氏心營世事, 慮鍾家業, 心形俱疲.

⑩ 재다. 측량하다.

【用例】『呂氏春秋·孟冬』審棺槨之厚薄, 營丘壟之小大高卑薄厚之度, 貴賤之等級.

⑪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가로 방향. 또는 횡로(橫路)나 횡선(橫線)

【用例】『楚辭·劉向·九歎·怨思』經營原野, 杳冥冥兮.

⑫ 보호하다. 구조하다.

【用例】『墨子·天志·中』不止此而已, 欲人之有力相

營, 有道相教, 有財相分也.

⑬ 현혹하다. 미혹시키다.

【用例】『淮南子·本經訓』目不營於色, 耳不淫於聲.

## 2)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榮’字<sup>10)</sup>의 의미와 用例<sup>11)</sup>

① 초목의 꽃.

【用例】『楚辭·九章·橘頌』綠葉素榮, 紛其可喜兮.

② 무성하다. 번성하다.

【用例】『歸去來辭』木欣欣以向榮, 泉涓涓而始流.

③ 많다. 성대하다. 풍부하다.

【用例】『荀子·大略』宮室榮與. 婦謁盛與.

④ 즐겁다.

【用例】『國語·晉語·4』目, 吾來此也, 非以狄爲榮, 可以成事也.

⑤ 현달하다. 영달하다. 부귀하게 되다.

【用例】『呂氏春秋·務大』三王之左, 其名無不榮者.

⑥ 영광스럽다.

【用例】『易·繫辭·上』樞機之發, 榮辱之主也.

⑦ 칭찬하다. 찬양하다.

【用例】『三國志·蜀志·霍峻傳』遂親率羣僚臨會弔祭, 因留宿墓上, 當時榮之.

⑧ 광택.

【用例】『釋名·釋言語』榮, 猶榮也. 熒熒, 照明兒也.

10)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서울. 결론출판부. 2004. p.518.

11) 이름, 명칭 등과 관련된 뜻은 글자의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韓醫學의 이론과 관련된 의미 또한 뒤에서 黃帝內經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에 제외하여 여기에서는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17개의 뜻 가운데에서 12개만 拔萃 및 引用하였다.

⑨ 아름다운 기색(氣色). 또는 자색(姿色)이 아름답다.

【用例】『列女傳·梁寡高行』高行者, 梁之寡婦也. 其爲人榮於色, 而美於行.

⑩ 비침(飛檐). 처마의 양쪽 끝이 번쩍 들린 부분.

【用例】『說文·木部』屋椽之兩頭記者爲榮.

⑪ 버리다. 허비하다.

【用例】『列子·周穆王』榮汝之糧, 不若過歸也.

⑫ 미혹시키다. 현혹하다.營과 통용.

【用例】『晏子春秋·問·上13』不爲行以揚聲, 不掩欲以榮君.

## 3)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의미와 用例 考察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사전적 의미를 간추려 보고 그에 符合하는 用例를 살펴본 결과, ‘미혹하다, 현혹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두 글자가 通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 가지 뜻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미에서는 重複되지 않고 각 글자가 뚜렷이 區分되어 사용되고 있다.<sup>12)</sup> ‘營’字는 명사적 의미인 ②, ⑩번 뜻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에워싸다, 주둔하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등의 동사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榮’字는 명사적 의미인 ①, ⑩번 뜻과 동사적 의미인 ⑩번 뜻을 제외하면<sup>13)</sup> ‘무성하다, 영화(榮華)롭다’ 등의 형용사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 2.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의미와 用例

『黃帝內經』에 ‘營’字는 『素問』 11 個篇 11 個章, 『靈樞』 29 個篇 42 個章에, 그리고 ‘榮’字는 『素問』

12) ‘미혹하다, 현혹시키다’라는 뜻에는 韓醫學의 의미가 없으므로 ‘營’字와 ‘榮’字 중 어느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本 論文에서는 考察하지 않기로 한다.

13) ⑤번 의미는 동사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符合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외하지 않았다.

21 個篇 27 個章, 『靈樞』 10 個篇 14 個章에 걸쳐 등장한다. 각 글자의 掲載 篇 數가 많고, 각 글자의 掲載 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각 글자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意味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分析의 便宜를 위해 『黃帝內經詞典』<sup>14)</sup>에서 제시한 意味 分類 方法을 따라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를 分類하였다. 그 결과 기타로 分類한 것을 제외하면 '營'字는 8가지의 意味로, 또 '榮'字는 6가지 意味로 用例를 區分 지을 수 있다.

### 1)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의 意味와 用例

『黃帝內經詞典』에 따르면 '營'字는 '氣血運行的營道', '輸運布養', '營氣', '周行·周次', '謀求', '經脈', '(被)迷惑', '營壘'<sup>15)</sup>의 8가지 意味로 分類된다. '氣血運行的營道'는 '氣血이 運行하는 導管, 길'이라는 意味로 명사적 意味를 갖고, '輸運布養'은 '영양을 運搬하고 퍼뜨리다.'라는 意味로서 영양의 意味를 가진 목적어를 運반한다는 동사적 意味를 갖는다. '營氣'는 衛氣와 對稱을 이루는 단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營氣·營血·營分·營養物質'의 意味를 갖는다. '周行·周次'는 '돌다·주행하다'는 意味인데, '輸運布養'에 목적어를 運행시키는 意味가 있는 것에 비해 여기에는 주어가 運행한다는 意味가 있다. '謀求'는 '조정하다·강구하다·모색하다·피하다'를 意味하고, '經脈'은 글자 그대로의 意味와 그 외에 '經穴'의 意味를 나타내고, '(被)迷惑'은 피동적 意味로써 '迷惑되다·眩惑되다'의 意味이다. 마지막으로 '營壘'는 '군영과 보루(堡壘)·陣營'을 意味하는데, 脈象이 沈하고 實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상의 分類 方法에 따라 '營'字가 포함된 『黃帝內經』의 原文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氣血運行的營道の 用例

【原文】『靈樞』「第十 經脈篇」 一章 中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sup>16)17)</sup>

#### ② 輸運布養의 用例

【原文】『素問』「第四十三 痺論篇」 五章 中  
其不痛不仁者, 病久入深, 榮衛之行滯, 經絡時疎, 故不通, 皮膚不營, 故爲不仁.<sup>18)</sup>

【原文】『素問』「第四十五 厥論篇」 一章 中  
氣因於中, 陽氣衰, 不能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在, 故手足爲之寒也. …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 精氣竭則不營其四支也.<sup>19)</sup>

【原文】『靈樞』「第五 根結篇」 中

以營五藏之精, 不應數者, 名曰狂生.<sup>20)</sup>

【原文】『靈樞』「第十二 經水篇」 一章 中  
經脈者, 受血而營之. 合而以治柰何?<sup>21)</sup>

【原文】『靈樞』「第四十七 本藏篇」 一章 中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

是故血和則經脈流行, 營覆陰陽, 筋骨勁強, 關節利矣.<sup>22)</sup>

【原文】『靈樞』「第六十三 五味論篇」 二章 中  
辛入于胃, 其氣走于上焦, 上焦者, 受氣而營諸陽者也.<sup>23)</sup>

#### ③ 營氣의 用例

【原文】『素問』「第三 生氣通天論篇」 二章 中

14)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15)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p.743-744.

1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17.

17)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743.

1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2.

1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9.

2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76.

2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50.

2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22.

2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09.

營氣不從，逆於肉理，乃生癰腫。<sup>24)</sup>

【原文】『素問』「第九 六節藏象論篇」 五章 中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倉廩之本，營之居也，名曰器，能化糟粕，轉味而入出者也。<sup>25)</sup>

【原文】『素問』「第十四 湯液醪醴論篇」 二章 中  
鍼石，道也。精神不進，志意不治，故病不可愈。今精壞神去，營衛不可復收。

何者？嗜欲無窮，而憂患不止，精氣弛壞，營泣衛除，故神去之而病不愈也。<sup>26)</sup>

【原文】『素問』「第六十二 調經論篇」 六章 中  
刺此者，取之經隧，取血於營，取氣於衛，用形哉，因四時多少高下。<sup>27)</sup>

【原文】『素問』「第七十七 疏五過論篇」 二章 中  
凡未診病者，必問貴賤後賤，雖不中邪，病從内生，名曰脫營。<sup>28)29)</sup>

【原文】『靈樞』「第六 壽夭剛柔篇」 四章 中  
黃帝曰 余聞刺有三變，何謂三變？

伯高曰 有刺營者，有刺衛者，有刺寒痺之留經者。

黃帝曰 刺三變者柰何？

伯高答曰 刺營者出血，刺衛者出氣，刺寒痺者內熱。

黃帝曰 營衛寒痺之爲病柰何？

伯高答曰 營之生病也，寒熱少氣，血上下行。<sup>30)</sup>

【原文】『靈樞』「第八 本神篇」 一章 中

凡刺之法，先必本于神。血脈營氣精神，此五藏之所藏也。<sup>31)32)</sup>

【原文】『靈樞』「本神 第八篇」 三章 中  
脾藏營，營舍意，<sup>33)</sup> 脾氣虛則四肢不用，五藏不安，實則腹脹，經洩不利。<sup>34)</sup>

【原文】『靈樞』「第九 終始篇」 六章 中  
凡此十二禁者，其脈亂氣散，逆其營衛，經氣不次，<sup>35)</sup>

【原文】『靈樞』「第十 經脈篇」 四章 中  
飲酒者，衛氣先行皮膚，先充絡脈，絡脈先盛，故衛氣已平，營氣乃滿，而經脈大盛。<sup>36)</sup>

【原文】『靈樞』「第十六 營氣篇」 中  
營氣之道，內穀爲寶。…

此營氣之所行也，逆順之常也。<sup>37)</sup>

【原文】『靈樞』「第十八 營衛生會篇」 一章 中  
人焉受氣，陰陽焉會，何氣爲營，何氣爲衛，營安從生，衛于焉會？…

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在脈中，衛在脈外，<sup>38)</sup>

【原文】『靈樞』「第十八 營衛生會篇」 二章 中  
老者之氣血衰，其肌肉枯，氣道澀，五藏之氣相搏，其營氣衰少而衛氣內伐，故晝不精，夜不眠。<sup>39)</sup>

【原文】『靈樞』「第十八 營衛生會篇」 三章 中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皆何道從來？

歧伯答曰 營出于中焦，衛出于下焦。…

常與營俱行于陽二十五度，行于陰亦二十五度一周也，故五十度而復大會于手太陰矣。…

中焦亦並胃中，出上焦之後，此所受氣者，泌糟粕，蒸津液，化其精微，

上注于肺脈，乃化而爲血，以奉生身，莫貴于此，故獨得行于經隧，命曰營氣。

黃帝曰 夫血之與氣，異名同類，何謂也？

2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9.

2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66.

2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86.

2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54.

28) '脫營'을 '營血'의 손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고 '營'字를 '營血'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2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14.

3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86-87.

3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98.

32)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743.

33)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743.

3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01.

3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14.

3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38.

3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4.

3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2.

3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3.

岐伯答曰 營衛者精氣也，血者神氣也，故血之與氣，異名同類焉。<sup>40)</sup>

【原文】『靈樞』「第三十 決氣篇」一章中  
壅遏營氣，令無所避，是謂脈。<sup>41)</sup>

【原文】『靈樞』「第三十三 海論篇」一章中  
黃帝問於岐伯曰 余聞刺法于夫子，夫子之所言，不離于營衛血氣。<sup>42)</sup>

【原文】『靈樞』「第三十四 五亂篇」一章中  
四時者，春秋冬夏，其氣各異，營衛相隨，陰陽已和，清濁不相干，如是則順而治。<sup>43)</sup>

【原文】『靈樞』「第三十四 五亂篇」二章中  
清氣在陰，濁氣在陽，營氣順脈，衛氣逆行，清濁相干，亂于中，是謂大怵。<sup>44)</sup>

【原文】『靈樞』「第三十五 脹論篇」一章中  
營氣循脈，衛氣逆為脈脹，衛氣並脈，循分為膚脹。<sup>45)</sup>

【原文】『靈樞』「第三十五 脹論篇」三章中  
然後厥氣在下，營衛留止，寒氣逆上，真邪相攻，兩氣相搏，乃合為脹也。<sup>46)</sup>

【原文】『靈樞』「第四十三 淫邪發夢篇」一章中  
正邪從外襲內，而未有定舍，反淫于藏，不得定處，與營衛俱行，而與魂魄飛揚，使人臥不得安而喜夢。<sup>47)</sup>

【原文】『靈樞』「第五十二 衛氣篇」一章中  
其浮氣之不循經者，為衛氣；其精氣之行于經者，為營氣。<sup>48)</sup>

【原文】『靈樞』「第五十四 天年篇」一章中

血氣已和，營衛已通，五藏已成，神氣舍心，魂魄畢具，乃成爲人。<sup>49)</sup>

【原文】『靈樞』「第五十四 天年篇」二章中  
營衛之行，不失其常，呼吸微徐，氣以度行，六府化穀，津液布揚，各如其常，故能長久。…

使道隧以長，基牆高以方，通調營衛，三部三里起，骨高肉滿，百歲乃得終。<sup>50)</sup>

【原文】『靈樞』「第五十六 五味篇」一章中  
穀氣津液已行，營衛大通，乃化糟粕，以次傳下。<sup>51)</sup>

【原文】『靈樞』「第五十六 五味篇」二章中  
黃帝曰 營衛之行奈何？

伯高曰 穀始入于胃，其精微者，先出于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sup>52)</sup>

【原文】『靈樞』「第五十九 衛氣失常篇」二章中  
營氣霈然者，病在血氣。<sup>53)</sup>

【原文】『靈樞』「第六十 玉版篇」二章中  
黃帝曰 病之生時，有喜怒不測，飲食不節，陰氣不足，陽氣有餘，營氣不行，乃發爲癰疽。<sup>54)</sup>

【原文】『靈樞』「第六十二 動脈篇」五章中  
黃帝曰 營衛之行也，上下相貫，如環之無端。<sup>55)</sup>

【原文】『靈樞』「第七十一 邪客篇」一章中  
營氣者，泌其津液，注之于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sup>56)</sup>

【原文】『靈樞』「第七十五 刺節真邪篇」三章中  
用鍼之類，在於調氣，氣積於胃，以通營衛，各行其道。<sup>57)</sup>

4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184-186.

4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53.

4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1.

4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5.

4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6.

4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69.

4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73.

4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05.

4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57.

4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64.

5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65.

5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72.

5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73.

5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85.

5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92.

5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05.

5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49.

5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49.

【原文】『靈樞』「第八十 大惑論篇」一章 中  
目者，五藏六府之精也，營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sup>58)</sup>

【原文】『靈樞』「第八十 大惑論篇」二章 中  
上氣不足，下氣有餘，腸胃實而心肺虛，虛則營衛留於下，久之不以時上，故善忘也。<sup>59)</sup>

【原文】『靈樞』「第八十一 癰疽」一章 中  
夫血脈營衛，周流不休，上應星宿，下應經數。<sup>60)</sup>

【原文】『靈樞』「第八十一 癰疽」三章 中  
營衛稽留於經脈之中，則血泣而不行，不行則衛氣從之而不通，壅遏而不得行，故熱。<sup>61)</sup>

#### ④ 周行，周次의 用例

【原文】『靈樞』「第五 根結篇」中  
一日一夜五十營，…  
所謂五十營者，五藏皆受氣，<sup>62)</sup> 持其脈口，數其至也。<sup>63)</sup>

【原文】『靈樞』「第十五 五十營篇」一章 中  
余願聞五十營，奈何?<sup>64)</sup>

【原文】『靈樞』「第十五 五十營篇」二章 中  
一萬三千五百息，氣行五十營于身，水下百刻，日行二十八宿，漏水皆盡，脈終矣。<sup>65)</sup>

【原文】『靈樞』「第十五 五十營篇」三章 中  
所謂交通者，并行一數也，故五十營備，得盡天地之壽矣，凡行八百一十丈也。<sup>66)</sup>

化研究會. 1993. p.488.

5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25.

5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27.

6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31.

6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38.

62)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p.743-744.

6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76.

6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1.

6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2.

6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2.

【原文】『靈樞』「第十六 營氣篇」中  
精專者，行于經隧，常營無已，<sup>67)</sup>68)

【原文】『靈樞』「第十八 營衛生會篇」一章 中  
營周不休，五十而復大會，陰陽相貫，如環無端。<sup>69)</sup>

【原文】『靈樞』「第六十八 上膈篇」一章 中  
歧伯曰 喜怒不適，食飲不節，寒溫不時，則寒汁流於腸中，流於腸中則蟲寒，蟲寒則積聚，  
守於下管，則腸胃充郭，衛氣不營，邪氣居之。<sup>70)</sup>

#### ⑤ 謀求의 用例

【原文】『靈樞』「第一 九鍼十二原篇」中  
余欲勿使被毒藥，無用砭石，欲以微鍼通其經脈，調其血氣，營其逆順出入之會，令可傳於後世。<sup>71)</sup>

【原文】『靈樞』「第十 經脈篇」一章 中  
凡刺之理，經脈爲始，營其所行，制其度量，內次五藏，外別六府，願盡聞其道。<sup>72)</sup>

【原文】『靈樞』「第四十八 禁服篇」二章 中  
凡刺之理，經脈爲始，營其所行，知其度量，內刺五藏，外刺六府，<sup>73)</sup>

#### ⑥ 經脈의 用例

【原文】『素問』「第六十 骨空論篇」一章 中  
鼠瘦寒熱，還刺寒府，寒府在附膝外解營。…  
督脈生病治督脈，治在骨上，甚者在齊下營<sup>74)</sup>

化研究會. 1993. p.172.

6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4.

68)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743. 황제내경사전에서는 ②의 意味로 分類 하였으나, '정미롭고 순수한 부분은 經隧를 행하되 속에서 항상 주행하여 끝이 없으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하므로, ④의 주행의 意味로 分類하였다.

6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2.

7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43.

7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9.

7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17.

7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335-336.

7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333-334.



【原文】『靈樞』「第四十八 禁服篇」 四章 中  
通其營輸，乃可傳于大數.<sup>75)</sup>

⑦ (被)迷惑의 用例

【原文】『素問』「第二十五 寶命全形論篇」 四章 中

經氣已至，慎守勿失，深淺在志，遠近若一，如臨深淵，手如握虎，神無營於衆物.<sup>76)</sup>

【原文】『素問』「第五十四 鍼解篇」 二章 中  
神無營於衆物者，靜志觀病人，無左右視也.<sup>77)</sup>

⑧ 營壘의 用例

【原文】『素問』「第十九 玉機眞藏論篇」 一章 中  
帝曰：善。冬脈如營，何如而營？  
岐伯曰：冬脈者腎也，北方水也，萬物之所以合藏也，故其氣來沈以搏，故曰營，反此者病。<sup>78)</sup>

2) 『黃帝內經』에 수록된 '榮'字의 意味와 用例

『黃帝內經詞典』에 따르면 '榮'字는 '茂盛繁盛', '榮華光華', '顯現', '榮養濡潤', '通營, 指營氣', '榮運', '血'의 7가지 意味로 分類된다.<sup>79)</sup> '茂盛繁盛'는 '茂盛(하다)·繁盛(하다)'의 意味로써 量적인 증가를 뜻하고, '榮華光華'는 ' 화려하다'의 意味로서 확대하여 '(화려함으로 인해)光彩가 난다'는 意味를 포괄한다. '顯現'은 '나타나다드러나다'를 意味하고, '榮養濡潤'은 '영양하여 적신다.'를 意味한다. '通營, 指營氣'의 경우 '榮'字는 '營'字와 통하여 '영기'를 意味하고, '榮運'은 '경영하다·운용하다'를 意味한다. 이는 단순히 '주행하다' 혹은 '운행하다'는 意味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작용하다.'는 意味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血'

은 '血分營血'을 意味한다. 이 경우 1)에서 '營氣'의 意味를 '營氣', '營血', '營分', '營養物質'로 정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脈絡에서 '榮'字의 分類에 있어서도 '榮氣'의 意味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뜻으로 分類한다. 더불어 해석이 難解하여 意味가 분명하지 않거나, 經絡을 意味하는 誤字로서 '榮'字로 고쳐 해석해야 그 意味가 통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分類하였다.

이상의 分類 方法에 따라 '榮'字가 포함된 『黃帝內經』의 原文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① 茂盛, 繁茂의 用例

【原文】『素問』「第二 四氣調神大論篇」 一章 中  
春三月，此謂發陳，天地俱生，萬物以榮.<sup>80)81)</sup>

【原文】『素問』「第二 四氣調神大論篇」 二章 中  
惡氣不發，風雨不節，白露不下，則菀稊不榮.<sup>82)83)</sup>

【原文】『素問』「第四十九 脈解篇」 二章 中  
所謂腰痛不可以俛仰者，三月一振榮華萬物，一俛而不仰也.<sup>84)</sup>

【原文】『素問』「第六十七 五運行大論篇」 五章 中

在性爲暄，其德爲和，其用爲動，其色爲蒼，其化爲榮，其蟲毛.<sup>85)</sup>

【原文】『素問』「第六十九 氣交變大論篇」 三章 中

歲木不及，燥乃大行，生氣失應，草木晚榮. …  
上臨陽明，生氣失政，草木再榮，化氣乃急，上應太白鎮星，其主蒼早. …

歲土不及，風乃大行，化氣不令，草木茂榮.<sup>86)</sup>

8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3.

81)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8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5.

83)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8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97.

8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85.

8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

7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39.

7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60.

7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09.

7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20.

79)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p.584-585.

【原文】『素問』「第六十九 氣交變大論篇」 三章中

歲火不及，寒乃大行，長政不用，物榮而下。凝慘而甚，則陽氣不化，乃折榮美，上應辰星。<sup>87)</sup>

【原文】『素問』「第六十九 氣交變大論篇」 五章中

岐伯曰 東方生風，風生木，其德敷和，其化生榮，其政舒啓，其令風，其變振發，其災散落。<sup>88)</sup>

【原文】『素問』「第七十 五常政大論篇」 一章中

蟄蟲不藏，土潤水泉減，草木條茂，榮秀滿盛 … 發生之紀，是謂啓軋，土疏泄，蒼氣達，陽和布化，陰氣乃隨，生氣淳化，萬物以榮。<sup>89)</sup>

【原文】『素問』「第七十 五常政大論篇」 一章中

其氣端，其性隨，其用曲直，其化生榮，其類草木，其政發散，其候溫和，其令風， …

涼雨時降，風雲並興，草木晚榮，蒼乾凋落，物秀而實，膚肉內充。 …

風寒並興，草木榮美，秀而不實，成而秕也。 …

赫曦之紀，是謂蕃茂，陰氣內化，陽氣外榮，炎暑施化，物得以昌。 …

政暴變則名木不榮，柔脆焦首。<sup>90)</sup>

【原文】『素問』「第七十一 六元正紀大論篇」 一章中

初之氣，地氣遷，氣乃大溫，草乃早榮， …

二之氣，陽乃布，民乃舒，物乃生榮。 …

五之氣，春令反行，草乃生榮， …

初之氣，地氣遷，風勝乃搖，寒乃去，候乃大溫，草木早榮，寒來不殺，溫病迺起。 …

初之氣，地氣遷，寒迺去，春氣正，風乃來，生布萬物以榮，民氣條舒，風濕相薄，雨迺後。 …

二之氣，陽氣布，風迺行，春氣以正，萬物應榮，寒氣時至，民迺和。 …

化研究會。1993。p.404.

87)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404.

88)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408.

89)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415.

90)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p.413-416.

五之氣，畏火臨，暑反至，陽迺化，萬物 生迺長榮，<sup>91)</sup>

【原文】『素問』「第七十一 六元正紀大論篇」 三章中

少陰所至爲火府，爲舒榮。<sup>92)</sup>

【原文】『素問』「至真要大論篇 第七十四 二章 中

歲太陰在泉，草乃早榮，濕淫所勝，則埃昏巖谷，黃反見黑，至陰之交。 …

陽明司天，燥淫所勝，則木乃晚榮，草乃晚生，筋骨內變。<sup>93)</sup>

【原文】『素問』「第七十四 至真要大論篇」 二章中

厥陰之復，少腹堅滿，裏急暴痛；偃木飛沙，倮蟲不榮<sup>94)</sup>

② 榮華，光華의 用例

【原文】『素問』「第十 五藏生成篇」 一章 中

心之合脈也，其榮色也，其主腎也。

肺之合皮也，其榮毛也，其主心也。

肝之合筋也，其榮爪也，其主肺也。

脾之合肉也，其榮唇也，其主肝也。

腎之合骨也，其榮髮也，其主脾也。<sup>95)</sup>

【原文】『素問』「第十 五藏生成篇」 二章 中

生於腎，如以縞裹紫，此五藏所生之外榮也。<sup>97)</sup>

【原文】『素問』「第七十 五常政大論篇」 三章 中

少陰所至爲榮爲形見 … 少陰所至爲榮化。<sup>98)</sup>

【原文】『靈樞』「第五十四 天年篇」 三章 中

91)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p.433-438.

92)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467.

93)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p.478-479.

94)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p.478-481.

95)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69.

96) 郭露春，副主編，李思澍 主編。黃帝內經詞典(上)。서울。一中社。1992。p.584.

97)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70.

98) 洪元植 譯。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서울。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1993。pp.433-468.

四十歲，五藏六府十二經脈，皆大盛以平定，腠理始疏，榮華頹落，髮頰斑白，平盛不搖，故好坐。<sup>99)</sup>

【原文】『靈樞』「第七十二 通天篇」 二章 中  
少陰之人，小貪而賊心，見人有亡，常若有得，好傷好害，見人有榮，乃反慍怒，心疾而無恩，此少陰之人也。<sup>100)</sup>

③ 顯現의 用例

【原文】『素問』「第三十二 刺熱篇」 二章 中  
太陽之脈，色榮顴骨，熱病也，榮未交<sup>101)</sup>，…  
少陽之脈色榮頰前，熱病也，榮未交，<sup>102)</sup><sup>103)</sup>

④ 榮養濡潤의 用例

【原文】『靈樞』「第十 經脈篇」 三章 中  
手太陰氣絕，則皮毛焦，太陰者，行氣溫于皮毛者也，故氣不榮則皮毛焦，皮毛焦則津液去皮節，津液去皮節者則爪枯毛折，

毛折者則毛先死，丙篤丁死，火勝金也。…

足太陰氣絕者，則脈不榮肌肉，脣舌者，肌肉之本也，脈不榮則肌肉軟，肌肉軟則舌萎人中滿，人中滿則脣反，脣反者，肉先死，

甲篤乙死，木勝土也。…

足厥陰氣絕，則筋絕，厥陰者肝脈也，肝者筋之合也，筋者聚于陰氣，而脈絡于舌本也。

故脈弗榮則筋急，筋急則引舌與卵，故脣青舌卷卵縮，則筋先死，

庚篤辛死，金勝木也。<sup>104)</sup>

【原文】『靈樞』「第十七 脈度篇」 三章 中  
氣并相還，則為濡目，氣不榮，則目不合。<sup>105)</sup>

9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66.

10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59.

101) 洪元植은 于鬯의 의견을 좇아 “‘交’는 응당 林校에 좇아 ‘夭’로 해야한다.”라고 하였다.

10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95.

103)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10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35.

10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

【原文】『靈樞』「第十七 脈度篇」 四章 中  
黃帝曰 氣獨行五藏，不榮六府，何也？

歧伯答曰 氣之不得無行也，如水之流，如日月之行不休，故陰脈榮其藏，陽脈榮其府<sup>106)</sup>

【原文】『靈樞』「第六十五 五音五味篇」 二章 中  
衝任之脈，不榮口脣，故鬚不生焉<sup>107)</sup>。…

歧伯曰 宦者去其宗筋，傷其衝脈，血寫不復，皮膚內結，脣口不榮，故鬚不生。…

歧伯曰 此天之所不足也，其任衝不盛，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sup>108)</sup>

【原文】『靈樞』「第七十一 邪客篇」 一章 中  
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sup>109)</sup>，以應刻數焉。<sup>110)</sup>

【原文】『靈樞』「第八十一 癰疽篇」 一章 中  
血枯空虛，則筋骨肌肉不相榮，經脈敗漏，薰於五藏，藏傷故死矣。<sup>111)</sup>

⑤ 通營, 指營氣의 用例

【原文】『素問』「第十四 湯液醪醴論篇」 二章 中  
今精壞神去，榮衛不可復收。<sup>112)</sup>

【原文】『素問』「第十八 平人氣象論篇」 二章 中  
藏真高於肺，以行榮衛陰陽也。<sup>113)</sup>

【原文】『素問』「第二十六 八正神明論篇」 二章 中  
觀其冥冥者，言形氣榮衛之不形於外，而工獨知之，…

文化研究會. 1993. p.179.

10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0.

107)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10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27.

109) 郭靄春, 副主編, 李思澍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11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449.

11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31.

11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86.

11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10.

故養神者，必知形之肥瘦，榮衛血氣之盛衰。血氣者，人之神，不可不謹養。…

刺必中其榮，復以吸排鍼也。故員與方，非鍼也。<sup>114)</sup>

【原文】『素問』「第二十七 離合真邪論篇」一章中

此皆榮衛之傾移，虛實之所生，非邪氣從外入於經也。<sup>115)</sup>

【原文】『素問』「第二十七 離合真邪論篇」三章中

反為氣賊，奪人正氣，以從為逆，榮衛散亂，真氣已失，邪獨內著，絕人長命，予人夭殃。<sup>116)</sup>

【原文】『素問』「第三十一 熱論篇」二章中  
三陰三陽，五藏六府，皆受病，榮衛不行，五藏不通，則死矣。<sup>117)</sup>

【原文】『素問』「第三十一 熱論篇」五章中  
五藏已傷，六府不通，榮衛不行，如是之後，三日乃死，何也？<sup>118)</sup>

【原文】『素問』「第三十四 逆調論篇」三章中  
榮氣虛，衛氣實也。榮氣虛則不仁；衛氣虛則不用，榮衛俱虛，則不仁且不用，肉如故也。

人身與志不相有，曰死。<sup>119)</sup>

【原文】『素問』「第三十五 瘧論篇」一章中  
此皆得之夏傷於暑，熱氣盛，藏於皮膚之內腸胃之外，此榮氣之所舍也。<sup>120)</sup>

【原文】『素問』「第三十九 舉痛論篇」四章中  
喜則氣和志達，榮衛通利，故氣緩矣。…  
炆則腠理開，榮衛通汗大泄，故氣泄。<sup>121)</sup>

11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164-165.

11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68.

11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72.

11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8.

11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90.

119)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06.

12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09.

12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39.

【原文】『素問』「第四十二 風論篇」一章中  
癘者，有榮氣熱附，其氣不清，故使其鼻柱壞而色敗，皮膚瘍潰。

風寒客於脈而不去，名曰癘風，或名曰寒熱。<sup>122)</sup>

【原文】『素問』「第四十三 痺論篇」五章中  
帝曰 榮衛之氣，亦令人痺乎？歧伯曰 榮者水穀之精氣也，<sup>123)</sup> …

其不痛不仁者，病久入深，榮衛之行澇，經絡時疎，故不通，皮膚不營，故為不仁。<sup>124)</sup>

【原文】『素問』「第五十八 氣穴論篇」二章中  
孫絡三百六十五穴會，亦以應一歲，

以溢奇邪，以通榮衛，榮衛稽留，衛散榮溢，氣竭血著，外為發熱，內為少氣。

疾寫無怠，以通榮衛，見而寫之，無問所會。…

肉之大會為谷，肉之小會為谿。

肉分之間，谿谷之會，以行榮衛，以會大氣。

邪溢氣壅，脈熱肉敗，榮衛不行，必將為膿，內銷骨髓，外破大腸，留於節湊，必將為敗。

積寒留舍，榮衛不居，卷肉縮筋，肋肘不得伸。<sup>125)</sup>

【原文】『素問』「第六十二 調經論篇」四章中  
寒濕之中人也，皮膚不收，肌肉堅緊，榮血泣，衛氣去，故曰虛。<sup>126)</sup>

【原文】『素問』「第七十七 疏五過論篇」二章中  
病深者，以其外耗於衛，內奪於榮。<sup>127)</sup>

#### ⑥ 榮運의 用例

【原文】『靈樞』「第十七 脈度篇」二章中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故曰關。

陽氣太盛，則陰氣不能榮也，故曰格。

陰陽俱盛，不得相榮，故曰關格。<sup>128)</sup>

12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53.

123) 郭靄春, 副主編, 李思樹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5.

124)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261-262.

12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26.

126)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352.

12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1993. p.514.

【原文】『靈樞』「第十七 脈度篇」 三章 中  
黃帝曰 蹻脈安起安止, 何氣榮水?<sup>129</sup>130)

【原文】『靈樞』「第五十七 水脹篇」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繫, 癖而內著, 惡氣乃起, 瘕肉乃生.<sup>131)</sup>

⑦ 기타

【原文】『素問』「第三十二 刺熱篇」 三章 中  
熱病氣穴 … 七椎下間, 主腎熱, 榮<sup>132)</sup>在臍也,<sup>133)</sup>

【原文】『素問』「第二十七 離合眞邪論篇」 一章 中  
經言氣之盛衰, 左右傾移, 以上調下, 以左調右, 有餘不足, 補寫於榮輸<sup>134)</sup>, 余知之矣.<sup>135)</sup>

【原文】『靈樞』「第二十八 口問篇」 二章 中  
歧伯曰 陽氣和利, 滿于心, 出于鼻, 故爲嚏. 補足太陽榮<sup>136)</sup>眉本, 一曰眉上也.<sup>137)</sup>

### 3.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意味와 用例에 대한 考察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의 意味와 用

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營’字는 ‘氣血이 運行하는 導管, 길’, ‘영양을 운반하고 퍼뜨리다’, ‘營氣’, ‘돌다·주행하다’, ‘조정하다·강구하다·모색하다·피하다’, ‘經脈·經穴’, ‘迷惑되다·眩惑되다’, ‘군영과 堡壘·陣營’ 등 8가지 意味가 있다. ‘榮’字는 ‘茂盛(하다)·繁盛(하다)’, ‘화려하다’, ‘나타나다·드러나다’, ‘영양을 적신다’, ‘영기’, ‘경영하다·운용하다·정상적으로 作用한다.’ 등 6가지 意味가 있고, 그 외 해석상 ‘榮’자로 해석하여 經穴 자리를 意味하는 경우와 해석이 難解하여 分類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각 글자가 고유의 意味로 사용되는 경우는 각각 6가지, 4가지이지만, ‘영기’, ‘영양을 운반하다’는 意味에서는 두 글자가 混用되고 있다.

東醫生理學的인 ‘영기’의 意味를 살펴보면, “營氣는 血과 함께 脈中으로 運行하는 氣로서 營養의 作用이 있고 그 營養함이 풍부하다고 하여 營氣라 칭한다. 營氣에서 營은 ‘영양, 운영’을 뜻한다.”<sup>138)</sup>고 한다. 『素問·痺論』에 “營者 水穀之精氣也”라 하고, 精微한 營養물질 중에서도 그 활성이나 성질이 淸柔(맑고 부드러운)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靈樞·營衛生會篇』에서 “淸者爲營”이라 하였다.<sup>139)</sup> 『東醫寶鑑』에서는 “營氣는 음식의 精氣로 그 대사는 脾에서 생성되고, 心の 통솔을 받으며, 肝에 저장되고, 肺에서 퍼지며, 腎이 나누어 보내어 온몸을 적신다.(榮者 水穀之精也. 生化於脾 總統於心 藏受於肝 宣布於肺 施泄於腎 灌溉一身)”<sup>140)</sup>라고 ‘영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營’字와 ‘榮’字의 사전적 意味를 비교하면 ‘營’字가 ‘榮’字에 비해 ‘운영하다, 경영하다’는 意味가 강하여 東醫生理學的인 ‘영기’의 意味에 보다 가깝다. 또 『黃帝內經』 內의 빈도수에서 ‘영기’를 나타낼 때 ‘營’字의 경우 28 個篇 36 個章에서, ‘榮’字의 경우 13 個篇 15 個章에서 사용되어 ‘營’字가 ‘榮’字에 비해 사용빈도에서 앞선다.

이상의 2가지 이유를 볼 때 ‘영기’를 意味하는 경

12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178.  
129) 甲乙經 卷二 第二에서는 ‘水’를 ‘也’로 보고 있다. 李慶雨는 “물처럼 運行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의견을 따라 ‘정상적으로 작용 한다’는 意味로 分類하였다.  
13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179.  
13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378.  
132) 해석이 難解하다. 飜譯本에 따라서는 榮화로움 또는 營血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13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196.  
134) 榮輸의 해석이 難解하다. 金達鎬는 ‘榮’字를 ‘榮’로 해석하고 있다.  
135)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168.  
136) 李慶雨는 “『太素』卷之十七 十二邪의 楊注에 근거하여 ‘榮’은 마땅히 ‘榮’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13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1993. p.241.

138) 차운근 外. 元氣·宗氣·榮氣·衛氣에 對한 考察. 서울. 東國대학교 韓의학硏究所. 1994. 13. p385.  
139) 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改訂版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142.  
140) 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改訂版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143.

우 ‘榮’字보다는 ‘營’字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의 경우, ‘운반하다’는 동사적 의미만이 추가되었을 뿐, ‘營’字가 영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영기’와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빈도수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이 ‘營’字는 6 個篇 6 個章에서, ‘榮’字는 6 個篇 7 個章에서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東醫生理學의 의미를 고려할 때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도 ‘營’字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IV. 結 論

混用되고 있는 ‘營’과 ‘榮’의 의미와 用處를 區分하기 위해서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榮’字와 ‘營’字의 사전적 의미와 古典 文獻에서의 用例를 살펴보았다. 또한 『黃帝內經』에 수록된 ‘營’字와 ‘榮’字를 포함한 原文을 각각의 文脈에 가장 적합한 의미로 分類하고, 이에 근거하여 原文을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사전적 의미와 古典 文獻에서의 用例를 分析해 본 결과 ‘營’字는 ‘경영하다, 운영하다’ 등의 동사적 의미가 강하고, ‘榮’字는 ‘많다, 영화롭다’ 등의 형용사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2. 『黃帝內經』에서 ‘營’字는 총 40 個篇 53 個章, 그리고 ‘榮’字는 총 31 個篇 41 個章에 등장하고 있다. ‘영기’,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榮’字와 ‘營’字가 混用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의미에서는 區分이 이뤄지고 있다. ‘영기’의 의미로 ‘營’字는 28 個篇 36 個章에서 사용되었고, ‘榮’字는 13 個篇 15 個章에서 사용되었다.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로 ‘營’字는 6 個篇 6 個章에서 사용되었고, ‘榮’字는 6 個篇 7 個章에서 사용되었다.
3. 東醫生理學의 脈內를 運行하는 營養작용이 풍부한 氣의 일종이며, ‘영기’의 ‘영’字는 ‘영양하다, 운영하다’의 뜻이 있다. ‘營’字와 ‘榮’字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하면 ‘營’字가 ‘榮’字에 비해 ‘운영하다, 경영하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東醫生理學의

인 ‘영기’의 의미에 보다 가깝다. 게다가 『黃帝內經』에서 ‘영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營’字와 ‘榮’字는 사용된 빈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營’字를 사용한 ‘營氣’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빈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東醫生理學의 의미를 고려할 때 ‘영양을 운반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에도 ‘營’字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논문>

1. 차윤근 外. 元氣·宗氣·榮氣·衛氣에 對한 考察. 서울.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4. 3. p385.

<단행본>

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社團法人傳統文化硏究會. 1993. p.19, 23, 25, 29, 66, 69, 70, 76, 86, 98, 110, 114, 117, 120, 135, 138, 160, 164, 165, 168, 169, 171, 172, 174, 178, 179, 180, 182, 184, 186, 188, 190, 195, 196, 206, 209, 239, 241, 253, 261, 262, 265, 266, 269, 273, 297, 305, 309, 322, 326, 333, 334, 339, 352, 354, 357, 364, 365, 366, 372, 373, 378, 385, 392, 405, 409, 427, 443, 449, 459, 488, 514, 525, 527, 531, 538. pp.86-87, 335-336, 404-408, 413-416, 433-468, 478-481.
2.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硏究所 編. 漢韓大辭典. 서울. 硏論출판부. 2004. p.518, 1311.
3. 郭靄春, 副主編, 李思澗 主編. 黃帝內經詞典(上). 서울. 一中社. 1992. p.584, 585, 743, 744.
4. 許浚 著. 東醫文獻硏究室 再編輯. 標點·索引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186, 272.
5. 金達鎬, 李鍾馨 譯. 補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圖書出版 醫聖堂. 2001. p.62, 84, 178, 186, 226, 252, 420, 582, 609, 902, 928, 930, 948.
6.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改訂版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142, 143.
7.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 여강출판사.

2007. p.48, 163, 304, 417, 432, 652, 669,  
765, 822, 827, 868, 1038.